

# 묵주기도(默珠祈禱) 중 ‘빛의 신비’의 상징성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고찰

김 보 애\*

## 국문초록

가톨릭교회는 1964년에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인류의 빛은 그리스도이다’라고 선포하였다. 2002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그리스도의 빛의 신비’를 선포했다. 세기를 달리하여 두 번에 걸쳐 그리스도가 빛임을 강조하며 이 시대에 ‘빛 그리스도’, ‘태양처럼 빛나는 그리스도’에 시선을 고정시켜 그 신비를 깨달으라고 교황은 촉구했다.

이에 본 연구는 묵주기도에서 ‘빛의 신비’의 상징성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고찰을 통해 ‘빛 그리스도의 빛의 신비’를 산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즉 빛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성경을 바탕으로 ‘빛의 신비’가 전개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이미지들의 상징성을 연구한다. 그 이미지들은 세례, 가나의 혼인잔치, 하느님 나라, 거룩한 변모, 최후의 만찬이다.

‘그리스도의 빛의 신비’를 산다는 것은 ‘빛의 그리스도-상(像)’을 각자 고유의 자기(Self)로 동화시키는 것으로 즉 대극의 체험을 통하여 의식화되고 개성화된 인격으로서 ‘세상의 빛’, ‘시대의 빛’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숙고한 연구이다.

**중심 단어 :** 묵주기도 · 빛의 신비 · 그리스도 · 자기(Self) · 분석심리학.

## 들어가는 말

묵주기도는 인간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으로 어둠이 되고, 부활과 승천으로 빛이 된 것을 묵상하는 기도이다. 또한 성모 마리아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고, 고통의 십자가 길을 동반하며 성모 승천으로 빛이 된 신비를 묵상하는 기도이다.

묵주기도는 2002년 전까지는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였다. 그런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에서 빛을 선포한 지 40년이 지난 현대에 ‘빛의 신비’가 묵주기도에 추가된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더 앞서 12세기부터 세 가지 신비를 기도해 온 묵주기도가 약 천여 년이 흐른 21세기에 네 가지 신비가 되고, 그 신비를 ‘빛의 신비’로 명명한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 세상이 비록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빛이신 그리스도’, ‘해와 같이 빛나신 그리스도’(마태 17,2)에 시선을 고정시켜 그 신비를 깨달으라고 촉구했다.<sup>1)</sup> 이는 그리스도가 어둠 속에 있고, 빛의 신비는 어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톨릭 도그마로써 묵주기도 중 빛의 신비가 첨가된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어두운 시대 속에서 빛으로써 희망을 기대하는 것은 분석심리학적 측면에서 볼 때 이는 시대적으로 원형의 움직임이 어둠으로 가려진 빛으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빛은 어둠과의 대립에서 드러난다. 빛과 어둠은 원시적인 상상력을 자극하여 白과 黑, 낮과 밤, 生과 死라는 본능적 상징체계의 출발점이 되었고, 정신적인 차원으로 옮겨와서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선과 악의 상징으로 변한다.<sup>2)</sup> 이러한 비물질적인 빛의 성격은 정신적 의미를 부여받음으로써 빛은 곧 정신적 세계, 영혼, 나아가서는 신의 상징이 된 것이다. 초월 영역인 신에 대한 여러 상징들 가운데 빛의 상징성은 거룩한 신성의 표현이다.

가톨릭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 교회에 관한 교의(敎義, dogma) 현장 <<인류의 빛(Lumen Gentium)>>에서 그 시작을 ‘인류의 빛(Lumen Gentium)은 그리스도이시다.’(1항)라고 장엄하게 선포한다.

1)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교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역(2002) :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Rosarium Virginis Mariae)>> 19항,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서울.

2) Huygue R, 김화영 역(1994) : <<예술과 영혼>>, 열화당, 서울, p114.

용은 교황 비오 12세가 성모 마리아의 승천 교의(Assumption of the Virgin Mary)를 선포하였을 때 환호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대중들 속에 마침내 거룩한 삼위일체와 나란히 자리할, 그리고 ‘천상여왕과 천상의 궁전에서 신부’로 생각될 중재자나 매개자에 대한 깊은 갈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천 년 이상 하느님의 어머니가 거기에 살고 있다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 왔고 우리는 구약성서에서 소피아(Sophia, 지혜)가 창조 전에 하느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sup>3)</sup>

용은 그 동안 가톨릭교의 중 삼위일체인 성부, 성자, 성령이 남성적, 남성적 의미에서 그동안 무시되었던 여성 원리가 성모승천으로 인하여 합해짐으로써 사위가 되는 즉 전체성을 이루는 의미를 가졌다는 것에 환호했다.<sup>4)</sup>

성모승천은 성모 마리아 자체가 빛이 됨을 의미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재위 25년 첫날인 2002년 10월 16일에 반포한 교서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Rosarium Virginis Mariae)》에서 12세기부터 전통적으로 해 오던 묵주기도의 세 가지 신비,<sup>5)</sup> 즉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에 ‘세상의 빛’<sup>6)</sup>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활(公生活)의 주요 신비들을 묵상하는 ‘빛의 신비’를 이 시대에 추가한 것은 심리학적인 의미가 크다.

따라서 본 논고는 21세기에 들어와서 12세기부터 지금까지 바쳐 온 묵주기도의 세 가지 신비에 ‘빛의 신비’가 추가된 시대적 의미와 가톨릭교회의 교의로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선포한 인류의 빛에 이어 40년이 지난 작금에 묵주기도 중 추가된 ‘빛의 신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현재, 이 시대가 암울한 어둠이라 하더라도 어둠 속에 빛이 감추어져 있음을 전제하며 빛을 향한

3) Jung CG(1969) : CW 11, *Psychology and Religion*, Routledge & Kegan Paul Ltd., London, para.748.

4) Jung CG(1968) : CW 14, *Mysterium Coniunctionis*, Routledge & Kegan Paul Ltd., London, para.237.

5) 묵주란 성모님께 기도를 드리기 위해 구슬을 열 개씩 구분하여, 보통 다섯 마디로 엮은 염주 형식의 환(環)을 말한다. 그러나 묵주는 염주와는 무관하다. 묵주 기도를 로사리오(Rosarium)라고도 하는데, 이는 로사리오라는 말이 장미 꽃다발(花冠)을 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묵주 기도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신비 속에서 성모님께 드리는 장미 꽃다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구원의 신비란 환희의 신비(歡喜-神祕), 고통의 신비(苦痛-神祕), 영광의 신비(榮光-神祕)이다.

6) 한국천주교주교회의(2005) : 《성경》,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서울, 요한 8,2, 9,5. \*본 논고에서는 교회법 제825조에 따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 2005년 춘계 정기총회에서 한국 교회 공용으로 승인한 성경을 인용한다.

과정임을 분석심리학적 측면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 ‘빛’의 상징성에 대한 융의 선행연구

융은 자연의 빛(Lumen naturae)에 대하여 플라톤(Platon), 쿤라트(Khunrath), 파라켈수스(Paracelsus), 도른(Dorn), 안티오키아의 이그나티우스(Ignatius von Antiochia)의 사상을 통하여 “불꽃 형태의 우주혼”에 대한 고대사상의 연계성을 연구한다. 즉 원형으로서의 불꽃을 자기(Self), 자연의 빛으로 설명한다. 의식의 빛은 다양한 정도의 밝음을 지녔고, 많고 작은 빛들로 둘러싸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며, 연금술의 ‘불꽃’이라는 관념으로 설명한다.

연금술서 《아우로라 콘수르겐스(Aurora consurgens), 떠오르는 새벽빛》에서 “씩기 시작한 대지는 재빠르고 하얀 작은 불꽃을 지니게 된다는 것을 알아라.”<sup>7)</sup>라고 말한다. 연금술사 쿤라트는 이 불꽃을 “수레바퀴의 살이면서 불꽃인 범심혼(汎心魂)”, 즉 하느님의 ‘성령’과 동일한 ‘우주혼’이라고 보며, “씨앗인 미래 세계”라고 하는 ‘빛의 씨앗’이 혼돈 속에 뿌려져 있다고 말한다.<sup>8)</sup> 이는 플라톤의 ‘불꽃 형태의 우주혼’이라는 이데아(Idea)의 빛 관념과 일치한다. 플라톤의 이데아의 빛 관념에서 불꽃과 원형을 동일시하는 것이다.<sup>9)</sup> 이 빛은 신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파라켈수스는 《필로소피아 사각스(Philosophia sagax)》에서 “인간 속에 무엇인가 신성한 누멘(Numen)없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적을수록 인간 속에 자연스런 빛(Lumen)없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적다. 누멘(Numen)과 루멘(Lumen), 오직 이 둘만이 인간을 완전하게 만든다. 이 둘에서 모든 것이 나오며 이 둘이 인간 속에 있다. 그것 없이 인간은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 없이 있을 수 있다.” 이 구절에 대하여 쿤라트는 “그것은 세계혼의 불꽃, 자연의 빛, 세계혼의 불타는 섬광, 위대한 자연의 구조를 꿰뚫으며, 여러 성분의 결실들

7)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2002a) : 융 기본 저작집 2, 《원형과 무의식》, 솔, 서울, pp49-51.

8)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2002a) : 앞의 책, p51.

9)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2002a) : 앞의 책, p51.

속으로, 어디에나 분산되거나 뿌려진다.”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쿤라트는 이 불꽃은 ‘성령’, ‘주의 입김’에서 나오는 것으로, 특별히 ‘매우 크고 강한 하나의 완전한 불꽃’으로 구별하고, 이 불꽃은 선약, 비약 자체라고 하며 하나의 불꽃을 강조하고 있다. 안티오키아의 이그나티우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것이 어떻게 영겁에 드러나게 되었는가? 하나의 별이 모든 별보다 더 밝게 하늘에서 빛났고, 그 빛은 이루 형용할 수 없어서 이방인들은 그러한 현상에 흥분했다. 해와 달과 더불어 모든 별들이 그 별을 둘러쌌다.”<sup>10)</sup> 이렇듯 쿤라트나 이그나티우스는 불꽃을 신성으로 보았고, 이는 심리학적으로 자기(Self)의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도른은 ‘자연의 빛’에 대하여 “그것은 우리 속에서 인간의 빛으로서 삶을 어렵듯이 비춘다. 동시에 암흑 속에서 빛을 비춘다. 그 ‘빛’은 비록 우리 자신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주거할 가치를 인정 받은 어떤 존재로부터 유래하지만 우리에게서 취할 수 없는 것이다.”<sup>11)</sup>라고 인간 안의 자연의 빛에 대하여 말하는데, 이는 인간이야말로 자연의 빛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자연의 빛은 밖으로부터가 아니라 성령(Holy Ghost)으로 비추어지는 빛이다. 그 빛은 불타려고 하는 종류의 것이고 더 오래 탈수록 보다 더 빛난다. 그러므로 자연의 빛에는 점화하려는 불타는 욕망이 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빛이다. 그 다음 인간은 보이지 않는 속에서 자연의 빛으로부터 지혜와 예술을 얻는다. 인간은 “자연의 빛의 예언자”이다. 인간은 자연의 빛을 특히 꿈을 통해서 배운다. 자연의 빛이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잠 속에서 하느님 말씀의 힘으로 그 모습을 갖춘다.<sup>12)</sup>

융은 종교적 내적 체험에 나타난 빛의 상징은 “많은 사람들의 연인”, 미트라, 태양의 영웅<sup>13)</sup>이라는 이미지로 발전해왔다고 말한다. 필로 폰 알렉산드리엔(Philo von Alexandrien)은 태양 속에서 신적 로고스의 이미지 혹은 신 자체의 이미지를 보았다.

10)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2002a) : 앞의 책, pp52-53.

11)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2002a) : 앞의 책, p53.

12)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2002a) : 앞의 책, pp55-56.

13)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2005) : 융 기본 저작집 7, 《상징과 리비도》, 숲, 서울, p161.

초기 그리스도교도들은 그리스도를 떠오르는 태양으로 숭배했다.<sup>14)</sup> 태양이 뜨는 순간 즉 《떠오르는 새벽빛 Aurora consurgens》은 빛의 계시를 암시한다.<sup>15)</sup> 암브로우스 찬가에서 그리스도를 “오 솔 살루티스(O sol salutis, 오 구원의 태양이여)”로 부르고 있다. 위(僞)-사프리언(Pseudo-Cyprian)의 한 구절에서도 “오, 주님의 예언은 얼마나 위대하고 신성하게 이루어지는가. 태양이 창조된 바로 그날, 3월 28일 수요일,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을 보면 말이다. 그래서 예언자 말라키아스(Malachias)는 그에 대해 군중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었다. 정의의 태양이 너희에게 떠오를 것이다. 그 태양이 떠다닐 때 치유가 이루어지리라.”라고 씌어 있다. 요하네스 크리소스토무스(Johannes Chrysostomus)의 〈동지, 하지, 춘분, 추분에 관하여〉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 있다. “주님은 겨울에, 12월 24, 25일 사이에 탄생하셨다. 사람들은 천하무적자의 탄생일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죽음을 정복하고 승리한 우리 주님처럼 완벽한 무적의 존재가 누구란 말인가? 다시 말해, 그들이 그날을 태양의 탄생일이라고 부른다면, 태양은 바로 예언자 말레아키가 말한 그 정의의 태양 자체다. 즉, 빛과 밤의 주인, 예언자들이 ‘정의의 태양’이라고 불려온 창조자이며 지배자이다.”<sup>16)</sup> 이렇듯 그리스도를 새로운 태양으로 불렀다. 실제로 태양 자체였다.

고대 그리스와 전방 아시아 지역의 문화권에서는 죽고 부활하는 신 오시리스(Osiris), 탐무즈(Tammuz), 아티스-아도니스(Attis-Adonis), 그리스도, 미트라스(Mithras), 피닉스(Phönix) 등의 상(象)을 통해 태양숭배가 행해졌다.<sup>17)</sup> 빛이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의 생존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사실을 고대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고대에 거의 모든 민족이 태양숭배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대인들은 태양의 존재를 지상의 사물과는 다른 인간의 지배 범위 밖에 있는 초월적인 존재, 신적인 요소로 파악하였던 것이다.

1927년 초에 용이 미국 남서부 타오스(Taos)의 푸에블로 인디언들을 방문했을 때 추장 마운틴 레이크와 대화한 내용에서 추장은 “미국인은 우리의 믿음을

14) Jung CG, 한국용연구원 C.G.용 저작 번역위원회(2002b) : 용 기본 저작집 5, 《꿈에 나타난 개성화 과정의 상징》, 솔, 서울, p263.

15) Jung CG, 이부영 역(2013) : 《현대의 신화》, 솔, 서울, p181.

16) Jung CG, 한국용연구원 C.G. 용 저작 번역위원회 역(2005) : 앞의 책, pp161-163.

을 밟아 없애고 싶어 한다. 그들은 왜 우리를 가만히 두지 못하는가? 우리는 세상의 지붕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아버지 태양의 자식들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아버지를 도와 그가 하늘을 건너가게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리 하지 않으면 세상은 어찌 되겠는가? 만일 우리가 믿음을 실천하는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십 년 뒤에는 태양이 더 이상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영원히 밤이 될 것이다.”<sup>18)</sup>라고 말한다. 이렇듯 인디언들에게는 태양의 자식들이라는 우주적인 의미가 그들이 살아가는 존재 의미였을 것이다.

불교에서도 “아미타불”이라는 부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 공덕의 힘으로 8,000만 겁(劫) 동안 생과 사를 윤회하는 죄로부터 면제받고, 죽었을 때는 눈앞에서 황금빛 연화와 함께 태양의 둥근 면을 보게 된다고 한다. 요가 수련은 지는 태양에 대한 정신 집중에서부터 시작하며, 명상은 태양에 잠겨 생각하는 것이고, 태양의 형태, 태양의 성질과 의미 등에 대하여 명백히 하고 실체화(實體化) 하는 것이다.<sup>19)</sup>

이렇듯 태양을 신과 동일시한 흔적을 각 처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신화에서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어둠이 있고, 빛은 대극으로 균형을 이룸을 암시한다. 태양 신화를 심리학적 측면에서 조망해 보면, 태양은 인간의 내적인 우주를 형성하는 원형적이고 정신적인 힘을 인격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태양의 숭배는 인간의 정신세계 안에서 강렬하게 움직이는 에너지의 흐름이며 심적 에너지의 현상임을 시사한다.

또한 융은 《현대의 신화》<sup>20)</sup>에서, 유에프오(UFO) 상징을 신의 상으로 보며 이런 상징은 빛과 불에 관련된다고 말한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원 모양의 상징, 만다라, 연금술의 언어로 둥근 것(Rotundum)이라고 표현되는 상징은 언제 어디서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영혼, 신의 상, 전체성, 개성화의 상징으로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신의 현현(顯現)은 전통적으로 빛과 불에 결

17)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2005) : 앞의 책, pp139-165.

18) Jung CG(1963) : *Memories, Dreams, Reflections*, Pantheon Books, New York, pp251-252.

19) Jung CG(1969) : CW 11, *Psychology and Religion*, Routledge & Kegan Paul Ltd., London, paras.926-928.

20) Jung CG, 이부영 역(2013) : 《현대의 신화》, 솔, 서울, pp17-36.

부된다고<sup>21)</sup> 하며 자기(Self)의 심리학적 개념은 한편으로는 전체 인간의 인식에서 도출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절로 무의식에서 생긴 것으로 내적인 모순에 의하여 결합된 원형적 4위로서 묘사되기 때문에 밝은 모습에 속하는 그림자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한다.<sup>22)</sup>

모든 원형은 본래 이롭고 이롭지 않으며, 밝고 어두우며, 좋고 나쁜 작용을 스스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므로 우리는 결국 자기, 혹은 대극의 복합성(complexio oppositorum)을 묘사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sup>23)</sup> 이렇듯 빛과 어두움의 대극은 어둠 속에 빛이 잉태되어 있기에 어둠은 빛의 원질료라 할 수 있다. 빛과 어두움의 대극 없이는 아무런 현상도 있을 수 없다.

## 묵주기도 중 ‘빛의 신비’의 상징성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고찰

### 1. 묵주기도(黙珠祈禱)

묵주기도는 로사리오 기도라고도 한다. 로사리오(Rosario)는 원래 ‘동정 마리아의 꽃다발(Rosarium Virginis Mariae ; The Rosary of The Virgin Mary, 花冠)’에서 유래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묵주 알을 세면서 바치는 기도라는 뜻에서 ‘묵주기도’라고 한다. 묵주란 구슬을 열 개씩 구분하여, 보통 다섯 마디로 엮은 환(環)을 말하는데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는 ‘매괴신공(枚塊神功)’이라고 한다. 이러한 묵주기도는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성모마리아께 장미꽃다발을 바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를 통한 은혜를 전구해 달라고 바치는 기도이다.

실예 펜 구슬을 하나씩 굴리면서 성찰을 하거나 묵상하는 기도 방식은 고대 동·서양의 여러 종교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이러한 기도 방식은 기원 후 태동한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당시 이교인들은 자기 자신을 신에게 바치는 의미로 머리에 장미꽃으로 엮은 관(冠)을 쓰는 관습이

21) Jung CG(1951) : CW 9ii, *Aion, Christ, a Symbol of the Self*, Routledge & Kegan Paul Ltd., London, para.125.

22) Jung CG(1951) : 앞의 책, para.125.

23) Jung CG(1959) : CW 9i, *The Archetype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para.555.

있었는데 이 영향을 받아 초대교회 신자들도 장미 꽃다발을 바치기도 하였다.

특히 초대 교회가 박해를 받던 당시, 원형 경기장(Coloseum)으로 끌려가던 신자들은 이 관(冠)이야말로 하느님을 빚고 자신을 하느님에게 바치는데 가장 합당한 예모(禮貌)라고 생각하여 종종 머리에 장미 화관을 쓰고 순교하였다. 한편, 이집트 사막의 은수자(恩讐者)나 독수자(獨讐者)들은 죽은 자들을 위해 날마다 시편을 각각 50편, 100편, 150편씩 외우기도 하였다. 이를 위해 작은 돌 멍이나 곡식 낱알을 머리에 쓰는 관처럼 둥글게 엮어 하나씩 굴리면서 기도의 횟수를 세었는데, 이때 그 수를 세기가 불편하므로 열매나 구슬 150개를 끈이나 가는 줄에 꿰어 사용하였다. 이렇게 고안해 낸 묵주는 기도하는 사람을 분심(分心)에서 해방시킬 수 있었고 전심(全心)으로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런데 12세기에 이르러 삼종기도(三鐘祈禱)<sup>24)</sup>가 널리 보급되면서,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도 깊어져 성모송<sup>25)</sup>을 50번이나 150번을 위와 같은 식으로 하였다. 그러다가 열 번째는 좀 더 큰 열매나 구슬을 사용하여 시편의 후렴처럼 주님의 기도를 바쳤다.

그뿐만 아니라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이 깊어지자, 마리아의 다섯 가지의 기쁨, 즉 수태 고지(受胎告知, Annunciation),<sup>26)</sup> 예수 성탄, 부활, 승천, 성모 승천 등과 관련지어 묵상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후에는 성모칠락(聖母七樂)<sup>27)</sup>을 묵상하였고, 급기야는 열다섯 가지 기쁨을 묵상하기도 하였다.

13세기에는 영광송(榮光頌, 하느님을 찬양하여 드리는 기도)<sup>28)</sup>이 첨가되었다. 성모송 10번 한 후 영광송을 하였는데, 이는 성무일도(聖務日禱, divine of-

24) 삼종기도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 준 예수의 잉태와 강생의 신비를 묵상하는 기도이다. 기도하는 때를 알리고자 아침, 낮, 저녁에 종을 쳤는데, 세 번의 종소리를 듣고 하는 기도라 하여 삼종기도라고 한다. 주교회의교리교육위원회(2015) : 《한국 천주교 예비 신자 교리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서울, p177.

25) 성모송(聖母誦, 라틴어 : Ave Maria 아베마리아, 영어 : Hail Mary)은 그리스도교에서 성모 마리아를 기리며 마리아에게 전구(傳求, 대신 빌어줌)를 간청하는 것이다.

26) 마리아가 성령(聖靈)에 의해 예수를 잉태하였음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알려줌.

27) 성모칠락(聖母七樂)은 마리아의 일생에 있어서 성서에 기록된 일곱 가지 기쁨을 말한다. 즉 주님 탄생 예고, 엘리사벳 방문, 예수의 탄생, 주님 공현, 성전에서 예수를 찾으신, 예수 부활, 성모 승천 등이 그것이다. 프란치스코회는 특별히 축일을 정해 성모님의 일곱 가지 기쁨을 기념하였다.

28)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ficé)<sup>29)</sup> 시편을 외울 때마다 영광송을 바치는 것을 본뜬 것이다. 그런데 당시 알비파 이교인들이 툴르즈 지방을 침략하자, 성 도미니코는 묵주기도란 성모 마리아가 직접 가르쳐 준 기도라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였다. 이때 드디어 초대회의 신심과 연결된 장미 꽃다발, 즉 ‘로사리오’라는 말이 등장하였다.

1464년 알랑 드 로슈(Alan de la Roche) 수사는 ‘매괴회(玫瑰會)<sup>30)</sup>’라는 신심단체를 만들어 묵주기도를 열심히 보급하였다. 그는 묵주기도의 주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강생, 수난, 부활에 따른 환희, 고통, 영광의 세 가지 신비로 묶어 묵상하였다. 그 후 이 기도는 급속도로 퍼져 나가 15세기 말에 이르러 전통적인 신비 15단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다. 그 이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재위 25년 첫날, 2002년 10월 16일에 반포한 교서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에서<sup>31)</sup>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에 ‘세상의 빛’(요한 8,2, 9,5)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활(公生活)의 주요 신비들을 묵상하는 ‘빛의 신비’가 추가된 것이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어둠과 신앙의 어둠에 싸여 있었고 그러한 어둠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하여 때가 차자, 하느님의 말씀은 어두운 이 세상에 한 줄기 참된 빛으로서 조용히 내려왔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이 세상에 왔다.”(요한 1,9) 묵주기도는 구약시대로부터 오기로 되어 있던 분, 이 세상에 새롭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사람이 된 하느님, 그 분이 바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묵주기도는 그리스도를 ‘세상과 인류의 빛’으로 믿으며 세상을 구해주실 유일한 분으로 고백한 성모 마리아의 기도인 것이다.

묵주기도는 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인 4 신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환희의 신비’는 성모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29) 매일 하느님을 찬미하기 위해 정해진 시간에 성직자나 수도자들이 드리는, 교회의 공적(公的)이고 공통적인 기도.

30) 매괴회(玫瑰會)란 묵주 기도를 통하여 성모께 특별한 공경을 드리고 특별한 도움을 청할 목적으로 설립된 신심회이다.

31) 묵주란 성모님께 기도를 드리기 위해 구슬을 열 개씩 구분하여, 보통 다섯 마디로 엮은 염주 형식의 환(環)을 말한다. 그러나 묵주는 염주와는 무관하다. 묵주 기도를 로사리오(Rosarium)라고도 하는데, 이는 로사리오라는 말이 장미 꽃다발(花冠)을 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묵주 기도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신비 속에서 성모님께 드리는 장미 꽃다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구원의 신비란 환희의 신비(歡喜-神祕), 고통의 신비(苦痛-神祕), 영광의 신비(榮光-神祕)이다.

잉태함과 세례자 요한을 잉태하고 있는 엘리사벳과의 만남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 봉헌한 후 찾으심을 묵상하는 기도이다.

두 번째 ‘빛의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활 자체를 빛으로 본 신비이다. 특별히 성모 마리아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창조와 구원 역사의 심오한 신비임을 신앙으로 고백하였다.

세 번째, ‘고통의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의 수난사이다.

네 번째, ‘영광의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한 후 성령을 보내심과 성모 마리아의 승천을 묵상한다. 이는 삼위일체가 사위일체가 되는 순간이다.

묵주기도는 성모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를 살아내는 경험적인 기도이다. 즉, 생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두고 생명의 전부로 삼는 삶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다. 묵주기도는 성모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기도이고, 묵주기도를 바치는 이는 성모 마리아와 하나가 되어 드리는 기도이다.

묵주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점은 입으로 외우는 기도(구도, 口禱)와 묵상기도(염도, 念禱)가 조화되어 하나가 된 기도라는 점이다. 각 단마다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과 ‘영광송’을 외우는 것은 마음을 집중시키고, 그 단에 해당되는 신비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도록 이끌어주며, 각 단의 신비를 묵상하는 것으로 외우는 기도를 더 아름답게 한다.

## 2. ‘빛의 신비’의 상징성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고찰

우리의 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과 나자렛 생활에서 공생활로 옮겨 가면서, 특별히 ‘빛의 신비’라고 부를 수 있는 신비들로 이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sup>32)</sup>이기에 참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신비는 ‘빛의 신비’이다. 이러한 진리는 그리스도가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공생활 동안에 특별히 드러난다.<sup>33)</sup>

‘빛의 신비’는 그리스도의 육화(肉化, incarnation)사건을 바탕으로 성립된다. 빛의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활(公生活)의 본질을 신적 본질의 상징인 빛 자체의 그리스도 이미지로 구성하여 눈으로 볼 수 없는 정신적이고, 추상적인 최고의 빛으로 묵상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자체가 빛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32) 한국천주교주교회의(2005) : 《성경》, 요한 8,1 ; 요한 9,5.

33)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교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역(2002) : 앞의 책, 21항.

성서를 바탕으로 한다. ‘빛의 신비’가 전개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이미지들은 세례, 물에서 포도주로의 변환, 하느님 나라 선포, 변모, 최후의 만찬이다.

### 1) 제 1 단 :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sup>34)</sup>

#### (1) 물과 세례

인류의 기원은 물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물은 가장 밑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물은 겸손하다. 물은 세계의 근원이며 모든 존재하는 것을 살아있게 하는 원천이기도 하다. 물은 모든 형태에 선행하여 모든 창조를 받쳐준다. “라피스에서 영원한 물이 생성된다. ‘원질료’는 물이다. 물은 모든 물체의 물질적 원리이며 또한 메르쿠리우스(수은)의 원리이다. 그것은 신의 창조 행위를 통해 혼돈에서 생성된 어둠의 구(球)이다.”<sup>35)</sup> 세례는 물과 접촉하는 의례이다. 심리학에서 세례는 무의식과의 접촉이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새로운 탄생’을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침수 세례는 몸을 물속에 담그는 의식이다. 이는 무의식에 잠기는 것인데, 물속에 잠기었다가 나오므로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탄생하는 것이 세례이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세례는 무의식을 의식으로 확장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엘리아데(Mirca Eliade)는 그리스도교가 물에 대해 종교적 가치를 부여했다고 보았는데, 이는 그리스도교 이전에 보편적인 물의 상징이 가지고 있던 가치를 활용한 것이다. 그는 세례의 상징성에 대하여, “물에 잠기는 것은 형태를 녹여서 그것을 존재 이전의 형태가 없는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형태 이전, 전체의 쇄신, 새로운 탄생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물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형태가 처음 만들어진 창조의 반복이다.”<sup>36)</sup>라고 말한다. 세례는 바다 괴물과의 결투를

34) 한국천주교주교회의(2005) : 《성경》, 마태 3,13-17.

35) Jung CG, 한국 융연구원, C.G. 융 저작번역위원 역(2004) : 융 기본 저작집 6, 《연금술에서 본 구원의 관념》, 솔, 서울, p135.

36) Eliade M(1963) : *Patterns of Comparative Religion*, World, p88.

위해서 물 속 깊이 하강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구약의 요나 이야기는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물속에 빠진 요나는 고래 뱃속으로 삼켜지는데 이곳에서 요나는 죽음과 함께 새로운 영적 탄생을 경험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sup>37)</sup>

세례는 하나의 통과의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세례를 통해 물속으로 잠기었다가 다시 나왔을 때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다. 즉 무의식에서 의식으로의 확장인 것이다. 세례는 암흑의 자궁, 용이 살고 있는 바다 속, 죽음인 어둠의 무의식에서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의식의 세계, 빛의 세계로 드러남이다.

용도 같은 맥락에서 세례에 대해 말한다. 그에 의하면, 세례반(洗禮盤)은 의식의 자궁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의식은 그 곳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즉 근원으로 되돌아가서 접촉이 될 때 치유가 일어난다. 그 근원에서는 어느 것도 불안하지 않고, 모든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질서정연하다. 우리는 그 곳에서 사물이 진정으로 존재하는 법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sup>38)</sup> 물에 잠기는 세례는 의식과 무의식이 만나는 거룩한 예식(ritual)이다.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변환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인공적 처리과정을 거쳐 비금속을 금속으로 변환시키는 연금술에서의 변환과정과 같다.<sup>39)</sup> 성서에 베자타 못가<sup>40)</sup>에 있었던 병자는 오랫동안 있었지만 물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물만 바라보았기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비로소 물속에 들어갈 수 있었고 물속에 잠겼다 나오으로써 병이 완전히 치유되었다.

세례는 정화의식으로 아담이 지은 원죄와 그 동안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새 사람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새로워지는 것은 정화를 전제로 한다. 세례는 심리학적으로 무의식과 접촉하는, 즉 무의식과 합일함으로써 변환을 가져오는 과정이다.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으로 끌어올려서 무의식과 의식이 하나가 되어 빛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화적 영웅의 탄생은 ‘태양’의 출현이다. 이는 보다 훌륭한 인격이 탄생하는 것이고, 곧 ‘빛’ 자체이며, 빛의 세계의 주인공인 것이다.

세례는 연금술의 용해(solutio)로 비유할 수 있다. 용해는 연금술의 뿌리로서

37) 김난주(2007) : 《용심리학의 관점으로 본 한국의 신화》, 집문당, 서울, p160.

38) Jung CG(1976) : *Visions Seminars*, 2, Zürich Spring Publications, pp409-410.

39) Jung CG(1959) : CW 9i, *The Archetype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 Routledge & Kegan Paul Ltd., London, para.238.

40) 베자타 못

모든 것이 물이 되기 전에는 어떤 작업도 실행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한다.<sup>41)</sup> 용해는 종종 대극인 것들의 모호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담기는 경험보다는 오히려 파편화와 해체로 경험된다. 그래서 용해는 죽음(mortificatio)이 되기도 한다. 용해는 한 형태가 사라지고 새로운 형태가 출현하는 이중의 효과를 가진다. 오래된 것을 용해하는 것은 부정적인 내용의 이미지로, 이는 니그레도(nigredo)와 연관된다.<sup>42)</sup> 따라서 예수의 세례는 용해의 고통으로 들어가는 죽음과 새로운 탄생을 의미한다. 즉 낡은 것은 죽고 빛이신 그리스도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례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한 개별적인 인간임을 증명한 것이다.

## (2) 세례자 요한

예수가 세례자 요한에 의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안내 하에 무의식 속에 자신을 침잠케 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예수가 요한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위탁했음을 의미한다. 세례자 요한과 예수와의 관계는 빛의 세계로 나오기 이전부터 시작된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에서, 즉 예수와 세례자 요한은 두 여성의 뱃속에 있을 때 이미 만났다.<sup>43)</sup> 세례자 요한은 신의 지혜를 전하는 자, 신약의 예언자였다. 세례자 요한과 예수의 관계는 하늘에 투사된 심리를 표현하는 태양신화에 기초한다.<sup>44)</sup>

용에 의하면, 부름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길을 가고 대중과의 무의식적 동일 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끄는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sup>45)</sup> 세례자 요한은 예수에 앞서 예수의 길을 닦기 위하여 예수보다 먼저 예언자적 소명을 받고 태어났다. 그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의 소명은 예수한테 세례를 주는 것이다. 세례자 요한이 자신의 소명을 다 한 후에는 헤로데의 딸, 헤로디아의 춤의 대가로 잘린 목은 쟁반에 담겨 한 여인에게 내려진 하사품에 불과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예수의 도래를 알리는 새벽빛으로 새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41) Edinger EF, 김진숙 역(2015) : 《연금술의 상징과 심리치료》, 돈화문출판사, 서울, p57.

42) Edinger EF, 김진숙 역(2015) : 앞의 책, p62.

43) 한국천주교주교회의(2005) : 《성경》, 루카 1,41.

44)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2006) : 융 기본 저작집 8,《영웅과 어머니 원형》, 숲, 서울, pp59-61.

45) Jung CG(1954) : CW 17,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para.299.

빛의 세계를 도래케 한 것이다.

**2) 제 2 단 :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니다.**

갈릴래아 가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성모 마리아는 혼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알려준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항아리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 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sup>46)</sup>

**(1) 포도주**

포도주는 영적이고 황홀경을 만들어 내는 빛의 신비이다. 물을 포도주로 변환시키는 예수님 자체가 빛이므로 말씀으로 물에 혼을 불어 넣어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래아 가나의 혼인식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항아리에 든 물을 포도주로 변환시킨다. 물이 포도주로 변형되기까지 중요한 부분은 성모 마리아의 참여이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sup>47)</sup> 즉 여성원리가 첨가됨으로써 변환이 일어난 것이다.

포도주와 같은 술의 기원은 농경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농경지가 없는 곳에는 유목민과 사냥꾼의 야만이 있을 뿐이지만, 포도나 곡물을 재배하는 곳에는 문명적인 삶이 있다. 그래서 포도주와 같은 술은 인간의 관심, 인내, 근면, 헌신, 힘든 노동을 포함하는 인간 문화 활동의 산물로서 인간적 노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제사에서 술을 바치고, 미사제의에서 포도주를 봉헌하는 것은 인간이 근면함을 통해서 얻은 가장 좋은 문화 활동의 산물을 바치는 것이다.<sup>48)</sup>

포도에는 고유한 혼, 즉 그 본래의 삶의 원리가 있다. 이 원리를 통해 포도는 적절하게 인간의 문화 활동뿐 아니라 계절에 따라 소멸하였다가 다시 소생하는 신, 즉 이들의 삶의 정령을 나타낸다. 포도는 인간의 배려와 노력이 있지만

46) 한국천주교주교회의(2005) : 《성경》, 요한 2,1-11.

47) 한국천주교주교회의(2005) : 《성경》, 요한 2,1.

48)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2008) : 융 기본 저작집 4, 《인간의 상과 신의 상》, 서울, pp233-235.

근본적으로 자신들의 내적인 법칙 또는 내부에서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성장한다. 이런 힘은 인간 자신의 삶의 입김 혹은 삶의 혼이다.

포도주는 인간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물과는 다른 일종의 열광시키는 음료이며 영적인 양식인데, 그 속에는 황홀경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영' 혹은 '신'이 들어 있다. 용에 의하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환시킨 기적은 디오니소스 사원에서의 기적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다마스쿠스의 성배에 최후의 만찬이 새겨져 있는데, 그리스도가 디오니소스와 같이 포도나무덩굴로 된 관을 쓰고 있다.<sup>49)</sup>

이러한 포도주의 풍성함은 유대인들의 풍요를 상징하며, 결국 포로시기에 맛보지 못한 그 풍족함과 평화를 기대하며 메시아를 포도주처럼 갈망해왔던 것이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환시킨 기적으로 예수가 메시아임을 고백한 것이다. 예수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진정한 포도주'인 메시아를 상징한다.<sup>50)</sup> 예수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다."<sup>51)</sup>라고 말한다.

포도주는 휘발성 물질, 즉 예전부터 사람들이 영(靈, Geist)이라고 불렀던 힘을 통해서 인간을 흥분시키고 마음을 기쁘게 하며 기운을 돋운다. 그래서 제천 의식 때에 술을 마시고 취흥에 겨워 가무를 즐겼다. 예기(禮記)에는 "술과 음식은 기쁨을 함께 하는 것이다."고 적혀있으며 성경에도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sup>52)</sup>라고 쓰여 있다.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정수라는 점에서 피와 동일시되어 생명 또는 불멸의 상징이 된다. 포도나무는 영적인 재생의 상징이며, 성찬식에서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로 변환된다. 포도주는 짙이긴 즙 속에 그 자체를 뭐가 더 강력한 다른 것으로 변환시키는 신비스러운 힘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변환의 상징이 된다. 포도가 포도주로 변환되는 과정과 피 같은 포도주의 붉은 색깔은 포도주가 신성하다는 상징을 내포하고 있다. 포도주를 땅에 붓는 헌주(獻奏)는 풍요와 사후의 삶을 상징한다. 그리스의 디오니소스의 숭배로 인해 포도주는 황홀경에

49)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2008) : 앞의 책, pp233-235.

50) Diel P(1988) : *Symbolism of the Gospel of John*, Harper and Low, San Francisco, p81.

51) 한국천주교주교회의(2005) : 《성경》, 요한 15,1.

52) 한국천주교주교회의(2005) : 《성경》, 시편 104,15.

서 신과의 합일을 상징하게 되었다. 그리스도교는 이 상징에 새로운 힘을 부여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sup>53)</sup>

폴 딜에 의하면, 포도주는 본질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본질의 의미는 하느님 한 분만이 진리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임을 뜻한다. 왜냐하면 예수의 몸과 피로 인해 죄 씻음 받고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포도주의 변환을 통해 제자들은 이제 예수로 인하여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지게 됨을 시인하게 된다.<sup>54)</sup>

씨프ريان(Cyprian, 카르타고의 주교)은 포도주를 그리스도, 물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와 관련시켰다. 물은 불환전체 혹은 나병이기 때문에 포도주와 혼합되기 전에 축성을 받음으로써, 포도주, 즉 영에 대해 순수한 몸, 그리스도, 거룩하고 순수한 신도들만이 첨가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sup>55)</sup> 이렇듯 포도주는 거룩한 물질로 신성한, 즉 포도 열매가 일련의 오랜 숙성의 과정을 통하여 변환된, 상징적으로 부활한 몸 즉 빛을 준비하는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 (2) 항아리

예수 그리스도는 항아리 안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변환시킨다. 여기에서 항아리는 연금술적인 변환의 기능을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항아리는 무언가를 담은 용기(容器)로서 여성의 자궁이나 작업실 등의 상징으로 여성적인 포용(包容), 여성의 생식 에너지, 모성적인 재생산, 창조가 이루어지는 그릇을 상징한다.<sup>56)</sup>

연금술에서 물질의 변환이 이루어지는 ‘용기(容器, *vas hermeticum*)’는 그 속에서 원질료(*prima materia*)가 정련되어 최고의 물질인 메르쿠리우스 또는 라피스(돌)가 생겨나는 곳이다. 더 나아가 용기는 증류통이 아니고 신비한 관념으로 표현된다. 즉 영원한 물(*aqua permanens*)으로써 표현되거나 또한 불이라고 명명되기도 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현자의 메르쿠리우스였던 것이다. 그것은

53) 한국천주교주교회의(2005) : 《성경》, 요한 6,56.

54) Diel P(1988) : 앞의 책, p79.

55)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2008) : 앞의 책, pp171-172.

56)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2008) : 앞의 책, p432.

신성한 이기(利器)에 생명을 불어넣는 그릇으로써의 동정녀와도 같다.<sup>57)</sup>

‘비밀의 용기’는 증류기, 용광로, 변화물질을 담는 기구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신비로운 것이며, 그 속에 모든 비밀이 들어 있다. 연금술 과정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용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용기’ 자체가 동정녀를 의미하고, 형상적으로는 신비한 돌을 산출하는 하나의 모체(母體, matrix)이거나 자궁이다. ‘용기’는 대립물을 결합한다. 연금술에서의 여성적 요소는 ‘만다라’의 형상으로 묘사된다. 둥근 형상의 원으로 나타나는 여성적 요소는 정신의 본래적인 총체성을 반영한다. 자아가 의식의 분화를 거듭하는 동안에도 무의식에는 근원적 전체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연금술에서 ‘비밀의 용기’는 전체성을 만드는 요소이다. 메르쿠리우스의 여성적 요소는 변환의 과정에서 ‘비밀의 용기’로 불리운다. ‘비밀의 용기’가 또한 전체성의 상징물로 나타난다.<sup>58)</sup> 용기는 모성성, 여성성을 의미한다.

이집트 신화에서 “오시리스의 무덤”은 나일강물이 가득한 항아리로, 소위 “오시리스의 항아리”로 상징되었다.<sup>59)</sup> 이는 오시리스가 죽음에서 부활한 항아리 속에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부활은 단순히 죽은 육체가 소생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재생산인데 이는 낡은 옛 육체의 장소에서 시작한다. “오시리스 항아리”를 이시스 행렬에서 운반하는 가장 성스러운 물건으로 기술하고 있다.<sup>60)</sup> 이는 오시리스가 재생한 것은 나일강 물이 가득한 항아리 안에서이기 때문이다.

후한(後漢) 때 비장방(費長房)의 이야기가 있다. 비장방은 여남(汝南)의 관원으로 있었다. 비장방이 저자에서 약을 파는 이상한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가게 앞에 항아리를 달아 두었는데, 장이 파하자 항아리 속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비장방이 술과 안주를 장만해 노인을 찾아가 대접하면서 서로 가까워졌다. 비장방은 노인에게 이끌려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 옥당(玉堂)에서 술과 안주를 대접받았다. 노인은 “본시 나는 신선계의 인물로, 득죄하여 잠시 이 세상에 와

57) Jung CG(1944) : CW 12, *Psychology and Alchemy*,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paras.350-351.

58) 이유헌(1998) : “서양 중세 연금술에서의 ‘안트로포스(Anthropos)’”, 《심성연구》, 13(1) : pp1-53.

59) 마리-루이제 폰 프란츠, 한오수 역(2017) : 《꿈과 죽음》, 한국융연구원, 서울, p43.

60) 마리-루이제 폰 프란츠, 한오수 역(2017) : 앞의 책, p43.

있다. 이제 기한이 다하여 떠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별에 즈음하여 술을 주었는데, 한 되들이밖에 안 되는 그릇인데도 두 사람이 종일 마셔도 끝이 보이지 않았다.<sup>61)</sup> 이 이야기는 항아리 속의 세계가 시공을 초월한 비속(非俗)의 세계임을 상징한다 하겠다. 그리고 종일 마셔도 술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기적의 항아리로서 가나의 혼인잔치와 유사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부족함이 없는 전체성의 상징이라 할 수 있겠다.

항아리 속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환되었다. 변환되기 위해서는 담아지는 용기인 항아리가 중요하다. 항아리의 상징성은 모성성, 여성성이 대표적이다. 항아리는 정신적 빛으로의 재탄생이 일어나는 변환이 일어나는 모성적 자궁이라 할 수 있다.

### (3) 여성원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항아리와 같은 여성원리인 성모 마리아가 등장한다. 용은 대극이 통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상에 대해 언급하면서 마리아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예수가 비판한 바리사이주의의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 인간은 ‘정신’ 원형에의 일방성에 대해서 신체성이나 여성성, 악(암흑)의 원리로 눈을 돌려 그 문제와 신중하게 대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상(像) 중에 미묘한 형태로 신체성과 여성성의 원리가 도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는 점이다. 그것은 신이 여성인 마리아의 육체를 통해서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합일의 원리가 보인다. 결국 유대교가 단순히 정신성이나 남성성만으로 치우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보상이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용은 해석했다.<sup>62)</sup>

용에 의하면, 물질적인 형태로 정신의 옷을 입히는 것이 여성성의 기능이다. 먼저, 하와에 에덴동산에서 하느님을 뱀의 모습으로 받아들였다. 신에 의해 낙인찍힌 인류의 운명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시작되었다. 이스라엘은 질투심으로 그들의 충성을 지켜보는 하느님에게 신부(新婦)와 같다.<sup>63)</sup> 에딘저는 뱀에

61) 後漢書 方術 費長房傳.

62) Jung CG, 홀 CS, 야코비, 설영환 역(1997) : 《용 심리학 해설》, 설영사, 서울, p342.

63) Jung CG(1936) : CW 18, *The Symbolic Life*, Routledge & Kegan Paul Ltd., London., para.616.

대한 하와의 순종과 예수 탄생 예고에서 천사에 대한 마리아의 순종은 유사한 사건이며, 같은 사건에 대한 두 개의 상징적 표현은 자아 발달의 다른 단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대극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말한다.<sup>64)</sup> 예수의 탄생 예고(수태고지)에서 마리아는 천사에게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sup>65)</sup>라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물을 포도주로 변환시키는 데 있어서도, 예수의 통명스러운 말투에도 불구하고 성모 마리아는 낙담하지 않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다. 성모 마리아는 아들에게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라고 말한다. 이렇듯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은 성모 마리아와 그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일치, 사랑의 예표이다.

용은 ‘초개인적인 사랑’의 경험에 대하여 말한다. 그에 의하면, 에로스는 우주의 창조자이며 모든 의식의 아버지-어머니이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신성(神性)이 “대극의 복합성(complexio oppositorum)”임을 증언하는 것이다. 인간은 가장 깊은 의미에서 우주 창조주의 “사랑”의 수단과 도구이며 그 희생물이다. 사랑은 개체보다 우월한 전체, 하나인 것, 나눌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부분으로서의 인간은 전체를 파악하지 못한다. 사랑은 합일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사랑은 우주 창조주의 빛이요, 어둠이며, 그 끝은 예측할 수 없다.<sup>66)</sup> 참되고 깊은 사랑은 희생이다. 자신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환상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사랑은 종교적 신념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사랑은 무조건적인 태도를 요구하며, 완전한 헌신을 바란다. 신에게 온전히 자신을 내맡김으로써 신의 은총을 향유하게 되는 신앙인처럼, 사랑은 조건 없이 감정을 헌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에게만 최고의 신비와 기적을 보여준다. 사랑은 신과 같아서 그 둘은 가장 용감한 종에게만 모습을 드러낸다.<sup>67)</sup> 이렇듯 신에게 온전한 내맡김의 태도는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 밑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지킨 사랑이요, 죽은 아들을 안은 피에타의 성모에서 볼 수 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환시키는 데 있어 성모 마리아의 개입이 있다. 변환을 일으

64) Edinger EF, 이재훈 역(2008) : 《그리스도인의 원형》,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서울, p28.

65) 한국천주교주교회의(2005) : 《성경》, 루카 1,38.

66) 아니엘라 야훼 엠클, 이부영 역(2000) : 《Jung CG의 회상, 꿈 그리고 사상》, 집문당, 서울, pp398-399.

67) 마리안느 쉬스, 한오수 역(2007) : 《사랑에 대하여》, 솔, 서울, p33.

키는 용기로서의 항아리와 같은 맥락에서, 마리아라는 여성적 존재는 대단히 중요하다. 성모 마리아의 간구로 예수는 물을 포도주로 변환시킨다. 잔치 집에 떨어진 포도주를 재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모 마리아만 알고 있었다. 이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초월기능인 하느님만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성모 마리아의 여성적 요소가 첨가됨으로써 새로운 빛의 탄생, 변환이 있을 수 있다.

### 3) 제 3 단 :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께서서는 요한이 잡히셨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래아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 즈블룬과 납탈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카파르나움으로 가서 자리를 잡으셨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sup>68)</sup>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sup>69)</sup> 예수그리스도 자체가 큰 빛이다. 어둠이 드리워진 곳에 있는 이들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현존하는 것이다.

‘하느님 나라’는 빛의 나라이다. 하느님 나라의 선포는 인간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이다.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이 인간이 되었고, 인간이 다시 하느님이 된 나라이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의 도래는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아버지 하느님으로부터 명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미션인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미션을 충실히 수행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하느님 나라는 인간을 죄에서 해방하는 구원된 나라이고, 하느님이 인간이 되었으며, 인간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병자를 고쳐주고, 눈먼 이를 눈을 뜨게 하고, 귀먹은 이를 뚫어 주었으며, 죽은 나자렛을 살려내었다. 죄 지은 이를 단죄하지 않고, 가난한 이에게 베풀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밤, 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과 설교를 하며 자신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느님께 순명하였다.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 나라를 구현하였다.

하느님 나라는 인간이 최고 가치를 가진 나라이고, 지복(至福)의 나라이다.

68) 한국천주교주교회의(2005) : 《성경》, 마태 4,12-17.

69) 한국천주교주교회의(2005) : 《성경》, 마태 4,16.

하느님 나라는 정의가 실현되고, 진리가 지고의 권리가 된다. 하느님 나라는 우주의 질서가 이루어지고, 인간의 삶이 풍요로운 나라이다. 하느님 나라는 파라다이스의 원죄가 회복된 나라이다.

하느님 나라는 무한, 초월에 대한 신성, 특히 ‘위에’ 있는 것, ‘떠받들어진 것’은 성스러운 것을 표상하기 때문에 많은 의례들 즉 승천, 기어오르기, 입문의례, 왕위 등극, 신화들(우주나무, 우주산, 화살의 사슬 등), 마법 비행과 같은 전설들 안에서 하늘의 상징이다. 모든 종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심’은 하늘의 상징과 관계가 있다.<sup>70)</sup>

하느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되었다. “하느님 나라가 왔다.”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하느님 나라는 확장되고 완성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 나라를 ‘겨자씨’, ‘누룩’, ‘보물’, ‘진주’, ‘그물’<sup>71)</sup>로 비유하여 설명한다. 하느님 나라는 보물과 진주처럼 소중한 것이지만 처음에 겨자씨나 누룩과 같이 작은 것이었다가 세월이 흐르는 대로 점점 커지고 확장되며 마침내 세상 말에 완성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그대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sup>72)</sup>

“하느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sup>73)</sup>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sup>74)</sup>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 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sup>75)</sup> ‘밭에 숨겨진 보물’은 자기(Self)이다. 그러므로 하느님 나라의 구현은 바로 의식화이고, 육화라고 할 수 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이다. 보물이 밭에 묻혀 있으면 빛이 나지 않는다. 하느님 나라의 구현은 밭에 있는 보물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은 무의식과 합일에 이르러 의식화하는 것이다. 즉 무의식 속에서 강력한 정신적 에너지인 리비도가 의식화로 변환되는 것이다.

응은 하느님 나라에 대하여 무의식 속에 집중된 리비도가 이전에는 객체

70) 미르치아 엘리아데, 강응섭 역(2006) : 《신화·꿈·신비》, 숲, 서울, p187.

71) 한국천주교주교회의(2005) : 《성경》, 마태 13,24-50.

72) 김보록(2003) : 《묵주기도 묵상》, 생활성서사, 서울, pp74-76.

73) 한국천주교주교회의(2005) : 《성경》, 루카 17, 20-21.

74) 한국천주교주교회의(2005) : 《성경》, 요한 18,36.

75) 한국천주교주교회의(2005) : 《성경》, 마태 13,44.

(objects)에 투사되었다. 과거에는 하느님이 ‘외부’에 존재했지만 이제는 하느님 나라로 표현된 숨겨놓은 보물과 같이 내면에서 일한다고 하였다.<sup>76)</sup>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느님 나라는 무의식이고, 의식의 차원과 다른 나라이다.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이 하느님 나라를 사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육화로써 하느님이 인간의 삶을 사는 것이다.

용의 메시지는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으며, 발에는 보물이 묻혀있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발은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을 의미할 수 있다. 보물은 하느님이고 최상의 가치 즉 자기(Self)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자기(Self)란 숨겨져 있는 본성을 지닌 보물과 같아서 자기(Self)를 인식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Self)를 체험하려면 주의 깊게 관찰하고 신중하게 고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즉 내적 경험에 충실한 삶을 산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느님 나라인 무의식에 귀를 기울이고, 의식화하는 과정, 개성화 과정을 이루는 것이 하느님 나라를 구현하는 과정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sup>77)</sup> 이 구절은 우리가 내면을 들여다본다면, 전 세계를 발견할 것이라는 말이다. 하느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내면의 자기(Self)를 향하여 가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

하느님 나라의 구현은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느님의 소명에 충실했던 것처럼 적극적인 응답이 요구된다. 이는 무의식과의 접촉을 인식하고 내면의 무의식에 귀를 기울여 내면으로 향해야 하는 것이다.

빛의 신비 3단의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의 선포’는 기쁜 소식이다. 이는 무의식을 의식화 시키는 능동적인 작업임을 시사한다. 즉 빛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하느님이 인간이 되고, 인간이 하느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야말로 참 기쁨일 것이다.

#### 4) 제 4 단 :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

옛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태양

76) Jung CG(1921) : CW 6, *Psychological Types*, Routledge & Kegan Paul Ltd., London, paras.423-424.

77) 한국천주교주교회의(2005) : 《성경》, 루카 17,20-21.

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얗졌다.<sup>78)</sup>

### (1) 산

산이라는 공간은 구약에서부터 하느님 현존과 계시를 드러내는 장소이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예언자들은 산에서 하느님 말씀을 체험하였고, 이사야의 제헌도 산에서 일어난다. 예수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산에 오르고, 유혹을 받고, 산상설교를 하고, 기도를 드리고, 겿세마니 동산에서 고뇌의 밤을 지새우고, 갈바리산에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과 같은 행위는 모두 산에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가 승천한 곳은 올리브산 위였다. 이 산들은 계시의 산이며 예루살렘 성전을 예시하는 산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산은 하느님이 현존하는 계시의 전례적(liturgical) 예식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산이라는 장소는 올라가야만 이를 수 있는 장소이다. 오른다는 의미는 영적인 성장을 의미한다. 상상 속의 산들은 대개 여러 층을 이루어 영적인 상승이 진행되는 단계를 나타낸다. 타볼산(Mount Tabor)이라고 알려진 높은 산은 고대로부터 신성한 지역으로 여겨지는데 산 정상 바위에는 고대 의식의 자취가 남아 있다고 한다.<sup>79)</sup>

신을 만나고 계시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진 타볼산 정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신과 같이 변하여 구름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서 있다. 이들이 등장하는 것은 유일신 사상을 강조한 대표적 예언자들이기 때문이다. 모세는 시나이 산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한 자들이다. 모세는 죽은 자들의 대표이며, 엘리야는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감으로써 살아있는 자들을 대표한다.<sup>80)</sup> 금구(金口) 요한 크리소스토무스(John Chrysostomus)<sup>81)</sup>에 의하면, 모세와 엘리야의 출현에 대하여 “이들은 하느님의 감춰진 비밀을 계시 받았다.” 모세는 율법을, 엘리야는 예언서를 나타내며, 이들의 방문은 예수의 고난, 죽음, 부활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절정을 이룰 것이며, 이

78) 한국천주교주교회의(2005) : 《성경》, 마태 17,1-8.

79) Ratzinger J, 박상래 역(2012) : 《나자렛 예수》, 1, 바오로딸, 서울, pp451-452.

80) 한국천주교주교회의(2005) : 《성경》, 2열왕 2,1-18.

81) 347년, 안티오키아에서 출생. 황금 입을 가진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는 감동적인 설교로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황금의 입’(크리소스토무스)라는 영예로운 별명을 얻었던 성인이다. 수백 개가 넘는 그의 〈설교〉(sermones : 미사 강론)와 〈강해〉(tractatus : 성서 특강)를 읽으면,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선포하던 요한의 뜨거운 숨결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들이 고매한 구원자, 장본인임을 드러낸다. 구약의 두 예언자와 신약의 세 사도는 구약과 신약이 서로 연결되어 일치함을 상징한다. 이 제자들은 예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헌신이 많은 이들로써 특별히 예수의 변모를 경험할 수 있었다.<sup>82)</sup>

따라서 타볼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태양처럼 빛나고 옷은 빛처럼 하얗게 변모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변환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 (2) 흰 색

예수의 옷은 빛처럼 하얗졌다. 흰색은 사물을 통하여 길조(吉兆)로 표상되는 경우가 많다. 흰 사슴, 흰 곰, 흰 죽지갈매기, 흰 뱀이 나타나면 상서로운 일이 생긴다. 흰 밥을 즐기면 오래 산다. 흰 옷을 입으면 남의 초대를 받는다. 아침에 흰 말을 보면 그 날 돈이 생기거나 재수가 좋다. 손톱에 흰점이 생기면 재수가 좋다. 꿈에 흰 원숭이를 보면 관록이 있다. 꿈에 백발이 되면 그 해에 근심 없이 생활한다. 꿈에 흰 옷을 입으면 사람에게 공경을 받는다.<sup>83)</sup>

제사장의 옷도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을 이용해서 만들어야 하며<sup>84)</sup> 반포 속옷과 관은 전체가 흰 베실로 하도록 정해져 있다.<sup>85)</sup> 다니엘의 꿈에서 하느님은 “연로하신 분”으로 나타나는데 “그분의 옷은 눈처럼 희고 머리카락은 깨끗한 양털 같았다.”<sup>86)</sup> 천사가 입고 있는 “아마포 옷”도 흰색을 나타낸다.<sup>87)</sup>

희게 빛나는 색은 그리스도교에서는 신성한 기본색이 되었다. 마르코 복음서에는 “그분의 옷은 이 세상의 어떤 마전장이라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sup>88)</sup>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sup>89)</sup> 묵시록에서 흰색은 완전한 순결, 청정, 불멸의 영광을 상징한다. 큰 환난을 거쳐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린양의 피로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빨아 희게 하였

82) 이미경(2012) : 안드레이 루블료프의 작품세계에 대한 고찰, 인천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43-45.

83) 한국문화상징사전편집위원회(1995) : 앞의 책, pp647-648.

84) 한국천주교주교회의(2005) : 《성경》, 탈출 28,30.

85) 한국천주교주교회의(2005) : 《성경》, 탈출 28,39.

86) 한국천주교주교회의(2005) : 《성경》, 다니 7,9.

87) 한국천주교주교회의(2005) : 《성경》, 다니 10,5.

88) 한국천주교주교회의(2005) : 《성경》, 마르 9,3.

89) 한국천주교주교회의(2005) : 《성경》, 요한 20,11-12.

다.”<sup>90)</sup> 심판의 시작에 즈음해서 성전에 나타나는 일곱 천사는 “깨끗하고 빛나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sup>91)</sup> 최후의 전쟁에 진군하는 왕 그리스도는 “흰말을 타고 계시며”<sup>92)</sup>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서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고 있었습니다.”<sup>93)</sup>

흰색의 긴 옷은 순수함, 정결, 육체에 대한 영의 승리를 의미하며, 고대 오리엔트에서는 죽은 자를 애도하기 위해서 입었고,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상복으로 사용되었다. 흰색은 생명과 사랑, 죽음과 매장의 양쪽과 연관된다. 결혼식에서 흰색은 옛날의 생명은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것을 상징하며, 장례식에서는 저승에서의 새로운 삶을 의미한다. 불교에서 흰색은 자제, 속죄의 뜻이 있다. ‘백다라보살(白多羅菩薩)’은 여성을 통한 최고도의 영적 변모, ‘인간을 이끌어 속박의 어둠에서 해탈하게 하는 여성’, ‘모든 부처의 어머니’를 뜻한다. 연금술에서 흰색은 검은 색과 빨간색과 함께 있으면 이니시이션(Initiation)의 3단계 즉 니그레도(nigredo, 흑화), 알베도(albedo, 백화), 루베도(rubedo, 적화)를 뜻한다.<sup>94)</sup>

신화 상에 나타난 산에 대한 색채관도 흰색이 지배적이다. 백산(白山)은 우리나라 각지에 있고 신성한 산으로 숭배된다. 큰 것을 태백산(太白山), 작은 것을 소백산(小白山)이라 하였다. 단군신화에 보면, 단군이 도읍을 백악산(白岳山) 아사달에 옮겼다고 했는데 악(岳)과 산(山)은 같은 뜻의 글자가 중복되었다. 흰색은 태양의 광명을 표상하고, 천신을 상징하는 신성색(神聖色)을 의미한다.<sup>95)</sup> 그러므로 산에서 흰색으로의 변모는 빛의 세계로 의식화되는 변환을 의미한다.

예수의 거룩한 변모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부터 발산하는 빛으로써 현시되는 생명의 충만을 의미한다. 모든 창조물을 위한 환희와 절대적인 이 만남의 원천인 타볼산의 정상은 하늘과 땅 사이를 연결하는 중심축의 우주적 상징이고 신적 자비의 유출점이며, 역으로 상승의 모든 인간적 노력의 수렴점

90) 한국천주교주교회의(2005) : 《성경》, 목시 7,13-14.

91) 한국천주교주교회의(2005) : 《성경》, 목시 15,6.

92) 한국천주교주교회의(2005) : 《성경》, 목시 19,11.

93) 한국천주교주교회의(2005) : 《성경》, 목시 19,14.

94) 진 쿠퍼, 이윤기 역(1994) :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상징사전》, 까치, 서울, pp77-78.

95) 한국문화상징사전편집위원회(1995) : 《한국문화상징사전》, 1, 동아출판사, 서울, pp647-648.

이다. 타볼산의 빛은 신성한 에너지와 신성화(神聖化, deificatio)와 모든 성화(聖化)가 발생하는 원천이 되었다. 모든 교회의 신성 신비에 대한 경험은 타볼산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sup>96)</sup>

**5) 제 5 단 :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 날까지, 이제부터 포도나무 열매로 빛을 갖는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sup>97)</sup>

이 ‘최후의 만찬’구절은 가톨릭 미사의 기원과 관련된 성경구절이다. 미사는 전례적으로 풍부하게 준비된 성만찬 축제라고 할 수 있다. 최후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체와 성혈로 변환되는 빛의 신비이다. 이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것을 성체성사(聖體聖事, Sacrament of Eucharist) 혹은 성찬식(聖餐式, Eucharist)이라고 교회는 말한다. 에우카리스티아(Eucharistia)는 ‘감사하다’라는 의미를 지니며 그리스에서 유래한다. 즉 최고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함을 말한다. 성찬례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과 희생으로써 하느님과 이웃들과 일치를 이룰 때, 성체성사의 신비는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성체성사는 어둠 속에 있는 인류에게 참으로 필요한 빛이라 할 수 있다고 교회는 말한다.<sup>98)</sup>

**(1)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은 인류사에 오래 전부터 다각적인 측면의 이미지가 있다. 원시인들은 살아있는 또 다른 존재의 살을 먹거나 피를 마심으로써 인간이 그 대상의 본질적 삶을 그 자신의 것으로 흡수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많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고대인들은 신성한 희생제물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음으로써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신성한 식사에서 신성한 동물의

96) 권순정(2006) : 교회사 속에 나타난 성상(Icon)의 발전과정에 관한 역사적 고찰, 감리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7.

97) 한국천주교주교회의(2005) : 《성경》, 마태 26,26-29.

98) 가톨릭 신문, 2004. 10. 24., 1면.

살과 피를 모든 참여자들에게 배분했으며, 각자는 그것에 자신의 생명을 합쳤다고 한다. 그 후에는 두 사람이 함께 먹는 어떤 음식이든, 동일한 음식이 살과 피로 들어가기 때문에 둘 사이의 신성한 일체성을 이룬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sup>99)</sup>

유대교의 유월절 의식에서는 희생제물을 바치는 조건하에서만 최상의 가치인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다. 흠 없는 어린양을 희생물로 드리라고 명하고 있다. 양의 피를 모든 이스라엘 가정의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그것은 주님의 복수의 천사가 하느님과 관계가 있는 집을 지나가도록 하기 위한 표시였다.<sup>100)</sup>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에 흠 없는 어린양은 그리스도를 상징했다. 그리스도는 속죄양으로서의 유월절 양을 대신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흠 없는 양의 피는 구속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피를 암시한다.<sup>101)</sup> 종교적 언어로는, “영원한 영을 통하여 흠 없는 자기 자신을 하느님께 바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음의 행실에서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느님을 섬기게 할 수 있겠습니까?”<sup>102)</sup>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후의 만찬이 지닌 토렘식사의 측면은 디오니소스 의식의 ‘생고기 만찬’에 해당한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술의 신인 바커스는 미친 디오니소스를 위해 방탕한 향연을 베풀었다. 그들은 날고기를 먹으면서 신성한 광증을 축하하고, 의식의 마지막은 도살된 날고기를 나누어 먹는 것으로 끝난다.”<sup>103)</sup>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와 디오니소스의 신비 사이에는 유사점이 있다. 디오니소스는 어린 시절에 타이탄에 의해 손발을 잘리는 수난을 겪는다. ‘생고기 만찬’에서 디오니소스는 그의 숭배자들에게 영원불멸을 주기 위해 자신의 살을 제공한다. 희생제물인 수소와 염소는 추종자들에게 자신의 살을 제공하는 디오니소스 자신을 나타낸다. 제우스가 한때 아직도 꿈틀거리는 신의 심장을 삼켰듯이, 디오니소스의 추종자들은 토막 난 정신을 다시 자신 속에 통합하기 위해서 짐승들의 고기를 뜯어먹었다.<sup>104)</sup> 신이 동물의 형태로 먹히는 것이다. ‘생고

99) Smith WR(1956) : *The Religion of the Semites*, Meridian Books, New York, p313.

100) 한국천주교주교회의(2005) : 《성경》, 탈출 12장.

101) 로렌스 W. 자피, 심상영 역(2006) : 《마음 해방하기》, 한국심층심리연구소, 서울, p174.

102) 한국천주교주교회의(2005) : 《성경》, 히브 9,14.

103) Harrison J(1922) : *Prolegomena to the Study of Greek Religion*, 3r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p483.

104) Edinger EF(1972) : *Ego and Archetype*, Shambhala, Boston & London, pp235.

기 만찬’에 참여하는 자는 디오니소스의 신적 본성을 얻게 된다.<sup>105)</sup> 이것은 최후의 만찬과 미사 봉헌 때에 그리스도가 신자들에게 영적 양식으로 살과 피를 나누어주는 것과 유사하다. 이는 최후의 만찬의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해체 즉 사지절단은 신비숭배 의식의 일부이다. 디오니소스 신비 의식에서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가 타이탄에 의해 찢기는 것은 성찬식 신화이며 살아있는 토렘동물물을 갈가리 찢어 삼키는 의식이다. 그리스도교 신화에 담긴 해체 즉 사지절단 모티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에서 로마 병사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찢은 뒤 주사위를 던져 나눠 갖는 장면에서 아름답게 암시되어 있다. 그 옷은 그리스도의 형태와 모습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종의 성찬식이라고 할 수 있다. 성찬식 자체는 일종의 해체이며 그리스도는 무수히 많은 조각으로 찢기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오스티아(빵)와 포도주 안에 있으며 그런 형태로 먹힌다. 이러한 신비의식에는 고대에 이미 깨달았던 철학적 측면이 있다. 즉 디오니소스가 갈가리 찢기는 행위를 통해서, 신성한 불꽃이 모든 것들 속으로 들어갔고, 신성한 영혼이 땅으로 들어갔다는 깨달음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은 신성한 것을 땅에 완전히 희생시키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하느님에 의해 세상을 구원하도록 보내졌고, 십자가형에 처해짐에 따라 세속 권력들에 의해 완전히 죽고 갈가리 찢겼지만 불꽃이 세속의 모든 권력들 안에 숨겨진 것이다. 타이탄들이 자그레우스의 살아 있는 심장을 솥에 넣은 즉시 제우스가 그것을 구해서 자신이 먹어 자그레우스가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다는 부활신화가 따른다. 고대 중국 철학 사상에 담겨 있는 상징적 지혜에 따르면, 음(陰)이 양(陽)을 삼키는 데 성공할 때, 모든 음 안에 양의 불꽃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부활의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빛이 해로운 힘들에 의해 완전히 꺼지더라도 훗날 부활을 보장하는 조건인 숨은 불꽃이 여전히 있다는 신비주의 가르침이기도 하다. 어떤 사물이 영원히 상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지 휴면 중이거나 배양의 조건으로 변화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 조건은 새로운 변화의 개시를 의미한다. 이러한 육체의 해체 즉 사지절단은 의식(儀式)의 일부로서 자기(Self)가 실체가 되는 데 필요한 일이었다. 자기는 손에 잡히지도 않고 거의 주술적

105) Harrison J(1922) : 앞의 책, p478.

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를 응결시키기 위해서는 의식이 필요한 것이다.<sup>106)</sup> 그래서 최후의 만찬 및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환되는 것은 연금술 과정의 응고(coagulation)와 관계가 있다 하겠다. 몸은 응고를 의미하며, 신체에 양분을 공급하는 음식과 식사의 이미지는 응고의 상징체계에 속한다. 음식이 몸 안에 체화되는 것은 몸속에 통합되어 새로운 형태로 변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응고는 본질적으로 땅(earth)으로 가꾸는 작업이기 때문에 “땅”은 응고의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땅은 무겁고 항상 거기에 있으며 고정되어 있고 공기 증으로 증발해 사라지지 않으며 물처럼 용기에 맞추어 모양을 바꾸지 않고 일정한 모양과 위치에 고정되어 있다. 이는 심리적 내용이 특정 부분에 제한된 형태로 구체화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sup>107)</sup> 그래서 응고는 사물들을 실제적으로 만드는 것, 즉 이념과 사고와 같은 보이지 않는 힘들을 구체화시키는 여성원리와 관계가 있다. 따라서 성찬식은 연금술 상징의 응고의 예식(coagulation rite)에 해당한다 하겠다.<sup>108)</sup> 또한 그리스도나 디오니소스의 삶은 불멸의 양식으로서, ‘철학자의 돌’과도 같다고 융은 말한다.<sup>109)</sup> 심리학적으로 최후의 만찬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신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의식과 무의식의 합일 및 죽음을 통한 빛으로의 재생을 나타내는 것으로 새로운 차원으로의 변환을 의미한다.

## (2) 개성화 과정으로서의 성찬식

개성화 과정의 누미노제의 경험은 원초적인 단계에서는 샤먼과 메디슨맨이 관장했으며, 시대가 지나면서 의사, 예언자, 사제가 관장하다가 문명의 단계에 이르러서야 철학과 종교가 관장하게 되었다. 샤먼의 질명, 고문, 죽음과 치유의 체험들은 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희생, 전체성으로의 재생, 성령 충만한 인간으로의 고양, 한마디로 신격화(apotheosis)라는 생각을 함유한다. 미사는 의식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심화되면서 애초에 고립적이던 개인의 경험이 점차 단위가 큰 무리들의 공통 자산으로 되는 방식으로 수천 년에 걸쳐 이어져온

106) Jung CG(1934) : *Visions 2*, Princeton University Press, New Jersey, pp1296-1305.

107) Edinger EF, 김진숙 역(2015) : 《연금술의 상징과 심리치료》, 돈화문출판사, 서울, p99.

108) Edinger EF, 김진숙 역(2015) : 앞의 책, p57.

109) Jung CG(1968) : CW 14, *Mysterium Coniunctionis*, Routledge & Kegan Paul Ltd., London, para.525.

발전의 결정이자 핵심이다. 즉 고대 이집트에서는 원래 왕의 특권에 속했던 오시리스화는 점차 귀족 계층으로 퍼졌다가 마지막에는 고대 이집트의 전통에 반하여 모든 개인들에게까지 확산되었다. 그리스의 비의들도 이집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래 폐쇄적이었고 알려지지 않았으나 점차 집단적인 체험들로 변화되었다.<sup>110)</sup>

용에 의하면, “성찬의 신비는 경험적 인간, 즉 부분으로서의 인간의 영혼이 그리스도에 의해 상징적으로 표현된 온전한 인간으로 변환되는 것에 있다. 심리학적으로 그리스도는 근원적인 빛의 인간, 안트로포스(Anthropos) 또는 원초적 인간으로서 범인(凡人)을 능가하는 포괄적인 전체성을 의미하며, 의식을 초월하는 전체 인격에 해당된다. 이러한 인격을 자기(Self)라고 부른다. 초시모스 환상의 고태적 단계에서 호문쿨루스(Homunculus)가 프노이마(Pneuma)로 변하고 고양되듯이, 성찬의 신비는 그 자신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유한한 인간의 심혼을 그리스도로서 표현되는 전체성으로 변환시킨다. 이런 까닭에 미사를 ‘개성화 과정의 의식(rite of the individuation process)’이라고 부를 수 있다.<sup>111)</sup> 즉 미사의 목적은 신자를 실제로 그리스도와 유사한 제물로 나타내면서, 변환의 과정에 포함시키려 하며, 사제와 신자를 그리스도와와의 신비적 참여(participation mystique)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한편으로는 심혼이 그리스도와 동화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상이 심혼 속에 재생된다. 미사에서 그리스도의 육화의 전체 드라마가 적어도 암시적으로 반복되는 한, 미사에서 일어나는 것은 신의 변환인 동시에 우리 심혼의 변환이다.”<sup>112)</sup> 이는 성찬식에서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 및 빛의 인간인 그리스도로의 변환이 일어남을 의미한다.

용은 “그리스도교의 십자가는 무질서에 대한 질서, 또는 형태 없는 대중의 혼란에 대한 질서를 의미한다. 십자가는 실제로 질서의 상징들 중 가장 근원적인 상징에 속한다. 정신적인 과정의 영역에서 십자가는 또한 질서를 만들어주는 중심의 기능을 가진다.”<sup>113)</sup>고 말한다. 로렌스 자피(Lawrence Jaffe)는 자신

110) Jung CG, 한국용연구원 C.G. 용 저작 번역위원회 역(2008) : 용 기본 저작집 4,《인간의 상과 신의 상》, 숲, 서울, p292.

111) Jung CG, 한국용연구원 C.G. 용 저작 번역위원회 역(2008) : 앞의 책, p263.

112) Jung CG(1976) : *Visions Seminars*, 2, Zürich Spring Publications, Zürich, para.419.

113) Jung CG(1973) : *Letters*, vol. 2,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p388.

이 저야 할 십자가는 각자의 열등한 그림자 콤플렉스를 의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신의 그림자를 타인에게 투사하지 않고 짙어지고 가는 것이 계속적으로 혼자 최후의 만찬을 행함을 의미한다고 한다. 또한 최후의 만찬에서 그랬던 것처럼, 미사에서 성만찬은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중요한 의례가 되었으며, 어둠의 시대에서 빛의 세계로 방향성을 돌릴 수 있는 세기의 의례가 되어야 할 것이며 개성화를 향해 가는 길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한다.<sup>114)</sup>

이렇듯 빛의 신비 5단의 성찬식은 무의식에서 의식으로의 변환이요, 어둠에서 빛으로의 변환인 것이다. 빵과 포도주가 예수의 몸과 피로 변환되는 예식인 성찬식을 거행하는 미사는 계속되는 원형적, 상징적 사건이다. 오늘날 미사 때마다 각 개인의 내적 체험으로 정동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바로 심리적 실재이며 미사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보배로운 원형적인 체험이라 할 것이다.

## 맺는 말

몇 해 전 피정에 참석했을 때 피정의 강의 주제가 묵주 기도 중 ‘빛의 신비’였다. 빛의 신비의 내용 중 세례, 물의 포도주로의 변환, 하느님 나라의 선포, 거룩한 변모, 최후의 성찬식에서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성스럽게 변환되는 빛의 신비는 연구자에게 원형적인 체험으로 심금을 울렸다.

가톨릭교회의 도그마로 현 시대에 ‘빛의 신비’는 연구자에게 ‘나는 ‘시대의 빛’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만 할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였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빛의 신비’를 강조하며 묵주 기도 중 ‘빛의 신비’를 선포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응에 의하면, 의식화가 비약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강력한 정신의 원형인 ‘빛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으로서 나타난다. 빛과 불, 불꽃으로 상징되는 신의 현현(顯現)은 언제 어디서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혼돈 상태에 질서 짓는 것, 해결하는 것, 치유하는 것이며 인격에 최대한 통일성과 전체성을 부여

114) 로렌스 W. 자피, 심상영 역(2006) : 앞의 책, p60.

하는 개성화의 상징으로, 우리 시대의 분열된 집단정신을 보상하는 상징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다.<sup>115)</sup>

지금 이 시대에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신비’를 강조하는 것도 우연한 일은 아니다. 분열과 혼란, 그리고 절망의 특징을 보이는 우리의 시대상황에 대한 집단의식의 반영이고 절실한 정신적 요구의 발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응은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격과 인격으로 극도의 암흑과 신의 불꽃의 반짝임으로 갈라지고 희생행위에서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에는 우리 인간에게 위로를 주는 가르침이 들어있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도 빛은 어딘가에 숨어 있으며, 그 빛은 다시 자신의 근원으로 돌아가게 될 뿐 아니라 이러한 빛이 어둠에 사로잡힌 존재들을 해방시키고 영원한 빛의 영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어둠 속으로 내려가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이전부터 존재하던 근원적인 ‘빛의 인간’, 안트로포스, 원초적 인간이라고 한다.<sup>116)</sup> 또한 불완전한 변형의 상태, 즉 단순히 희망하거나 기다리고 있는 상태는 고통의 측면만이 아니라, 비록 숨겨져 있지만 긍정적인 행복의 측면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심리적 변화의 미로에서 방황하는 한 사람이 자신의 외형적 외로움과 화해시켜주는 비밀스러운 행복함과 만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sup>117)</sup>

응은 인간 존재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어둠 속에 빛을 밝히는 것, 즉 의식을 창조하는 것, 개성화 과정이며<sup>118)</sup> 육화(incarnation)개념은 유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인류에게 점점 더 의식되며 영원히 계속되는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과정이라고 한다.<sup>119)</sup>

어둠의 세계, 고통의 세계에서 인류는 빛을 향해 고개를 돌릴 때에만 비로소 신세계로 나올 수 있다. 어둠에서 빛으로 다시 어둠으로 방향 지음이 에너지의 흐름이고 환류이다. 인간의 정신은 바로 어둠 상태의 짙은 그림자를 통찰하라는 표징을 읽고 의식화시켜야 한다. 빛을 향한 인간의 갈망은 시작에서 끝까지

115) Jung CG, 이부영 역(2013) : 《현대의 신화》, 숲, 서울, pp38-40.  
 116)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2008) : 앞의 책, pp231-232.  
 117) Jung CG(1968) : CW 14, *Mysterium Coniunctionis*,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para.623.  
 118) Jung CG(1951) : CW 9ii, *Aion, Christ, a Symbol of the Self*, Routledge & Kegan Paul Ltd., London, para.492.  
 119) Dourley JP(2001) : “육화 개념에 대한 재고찰”, 《심성연구》, 16(1) : pp1-33.

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둠과 빛이 반복되는 영원이다.

시대의 어둠, 혼돈은 그 보상으로 새로운 빛의 인간을 필요로 한다. 파라켈수스는 인간은 ‘자연의 빛’을 갖추고 태어났기 때문에 방향하지 않도록 예정되어 있으며 또한 인간은 “자연의 빛의 예언자”라고 한다.<sup>120)</sup> 마태복음에 의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sup>121)</sup>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현실을 전체적으로 살았듯이 각자 자신의 고유한 현실을 전체적으로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의 어두운 곳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 ‘시대의 빛’이 되는 소명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내적인 빛을 잃어가고 있는 이 세상이 비록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빛이신 그리스도’, ‘태양처럼 빛나는 그리스도’<sup>122)</sup>에 시선을 고정시켜 그 신비를 깨달으라고 촉구한 의미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톨릭교회의 도그마인 묵주기도 중 ‘빛의 신비’를 고찰해 보았다. 빛의 신비 1단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음성과 함께 빛이 쏟아져 내려오이다. 2단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켰다. 포도주는 영적이고, 황홀경을 만들어 내는 빛의 신비이다. 물을 포도주로 변환시킨 예수님 자체가 빛이므로 말씀으로 물이 포도주가 된다. 이는 물에 혼을 불어 넣은 것이다. 3단은 하느님 나라의 선포이다.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sup>123)</sup>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큰 빛이다. 어둠이 드리워진 곳에 있는 이들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현존하는 것이다. 4단은 “그분의 얼굴은 태양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얗졌다.”<sup>124)</sup> 예수의 거룩한 변모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부터 발산하는 빛의 신비이다. 5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체와 성혈로 변환되는 빛의 신비이다.

본 논고에서는 한 인간으로 세례를 받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의 공

120) Jung CG(1954) : CW 8,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the Psyche*, Routledge & Kegan Paul Ltd., London, pp194-195.

121) 한국천주교주교회의(2005) : 《성경》, 마태 5,14.

122) 한국천주교주교회의(2005) : 《성경》, 마태 17,2.

123) 한국천주교주교회의(2005) : 《성경》, 마태 4,16.

124) 한국천주교주교회의(2005) : 《성경》, 마태 17,2.

생활, 거룩한 변모, 성찬식이 담긴 빛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화된 삶과 ‘빛 그리스도-상(像)’을 각자 고유의 자기(Self)로 동화시키는 것, 즉 그리스도 모방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자신의 개성을 의식화하는 개성화 과정을 고찰해 보았다.

연구자는 묵주기도 중 ‘빛의 신비’의 분석심리학적 상징성을 고찰하면서 ‘빛의 신비’를 체화해 보았다. 연구자에게 ‘빛의 신비’는 어둠의 시대에 한 줄기 빛이 되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의 삶은 한 인간으로서의 빛이고, 희망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방이 아니라 내가 되는 개성화 과정으로의 방향성으로 나아감이야말로 이 암울한 어둠의 시대에 ‘빛의 신비’를 육화시키는 첫 발걸음일 것ियो, 그 발걸음을 재촉해야만 할 시점에 있음을 깊이 숙고한 작업이었음을 고백하면서 본 고찰을 마감한다.

### 참 고 문 헌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교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역(2002) :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Rosarium Virginis Mariae)》 19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서울.
- 권순정(2006) : 교회사 속에 나타난 성상(Icon)의 발전과정에 관한 역사적 고찰, 감리교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난주(2007) : 《융심리학의 관점으로 본 한국의 신화》, 집문당, 서울.
- 김보록(2003) : 《묵주기도 묵상》, 생활성서사, 서울.
- 로렌스 W. 자피, 심상영 역(2006) : 《마음 해방하기》, 한국심층심리연구소, 서울.
- 마리 루이제 폰 프란츠, 한오수 역(2017) : 《꿈과 죽음》, 한국융연구원, 서울.
- 마리안느 쉬스, 한오수 역(2007) : 《사랑에 대하여》, 숲, 서울.
- 미르치아 엘리아데, 강웅섭 역(2006) : 《신화·꿈·신비》, 숲, 서울.
- 아니엘라 야훼, 이부영 역(2000) : 《Jung CG의 회상, 꿈 그리고 사상》, 집문당, 서울.
- 이미경(2012) : 안드레이 루블료프의 작품세계에 대한 고찰, 인천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유경(1998) : “서양 중세 연금술에서의 ‘안트로포스(Anthropos)’”, 《심성연구》, 13(1).
- 주교회의교리교육위원회(2015) : 《한국 천주교 예비 신자 교리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서울.
- 진 쿠퍼, 이윤기 역(1994) :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상징사전》, 까치, 서울.
-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1995) : 《한국문화상징사전》, (1), 동아출판사, 서울.
- 한국천주교주교회의(2005) : 《성경》,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서울.

- Diel P(1988) : *Symbolism of the Gospel of John*, Harper and Low, San Francisco.
- Dourley JP(2001) : “육화 개념에 대한 재고찰”, 《심성연구》, 16(1) : pp1-33.
- Edinger EF(1972) : *Ego and Archetype*, Shambhala, Boston & London.
- Edinger EF, 김진숙 역(2015) : 《연금술의 상징과 심리치료》, 돈화문출판사, 서울.
- Edinger EF, 이재훈 역(2008) : 《그리스도인의 원형》,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서울.
- Eliade M(1963) : *Patterns of Comparative Religion*, World.
- Harrison J(1922) : *Prolegomena to the Study of Greek Religion*, 3r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Huygue R, 김화영 역(1994) : 《예술과 영혼》, 열화당, 서울.
- Jung CG(1921) : CW 6, *Psychological Types*, Routledge & Kegan Paul Ltd., London.
- \_\_\_\_\_ (1934) : *Visions 2*, Princeton University Press, New Jersey.
- \_\_\_\_\_ (1936) : CW 18, *The Symbolic Life*, Routledge & Kegan Paul Ltd., London.
- \_\_\_\_\_ (1944) : CW 12, *Psychology and Alchemy*, Routledge & Kegan Paul Ltd., London.
- \_\_\_\_\_ (1951) : CW 9ii, *Aion, Christ, a Symbol of the Self*, Routledge & Kegan Paul Ltd., London.
- \_\_\_\_\_ (1954) : CW 8,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the Psyche*, Routledge & Kegan Paul Ltd., London.
- \_\_\_\_\_ (1954) : CW 17,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Routledge & Kegan Paul Ltd., London.
- \_\_\_\_\_ (1956) : CW 5, *Symbols of Transformation*, Routledge & Kegan Paul Ltd., London,
- \_\_\_\_\_ (1959) : CW 9i, *The Archetype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 Routledge & Kegan Paul Ltd., London.
- \_\_\_\_\_ (1963) : *Memories, Dreams, Reflections*, Pantheon Books, New York.
- \_\_\_\_\_ (1968) : CW 14, *Mysterium Conjunctions*, Routledge & Kegan Paul Ltd., London.
- \_\_\_\_\_ (1969) : CW 11, *Psychology and Religion*, Routledge & Kegan Paul Ltd., London.
- \_\_\_\_\_ (1973) : *Letters, 2*, Routledge & Kegan Paul Ltd., London.
- \_\_\_\_\_ (1976) : *Visions Seminars, 2*, Zürich Spring Publications, Zürich.
- Jung CG, 이부영 역(2013) : 《현대의 신화》, 솔, 서울.
-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2002a) : 융 기본 저작집 2, 《원형과 무의식》, 솔, 서울.
- \_\_\_\_\_ (2002b) : 융 기본 저작집 5, 《꿈에 나타난 개성화 과정의 상징》, 솔, 서울.
- \_\_\_\_\_ (2004) : 융 기본 저작집 6, 《연금술에서 본 구원의 관념》, 솔, 서울.
- \_\_\_\_\_ (2005) : 융 기본 저작집 7, 《상징과 리비도》, 솔, 서울.

- \_\_\_\_\_ (2006) : 용 기본 저작집 8, 《영웅과 어머니 원형》, 솔, 서울.
- \_\_\_\_\_ (2008) : 용 기본 저작집 4, 《인간의 상과 신의 상》, 솔, 서울.
- Jung CG, 홀 CS, 야코비, 설영환 역(1997) : 《용 심리학 해설》, 설영사, 서울.
- Ratzinger J, 박상래 역(2012) : 《나자렛 예수》, 1, 바오로딸, 서울.
- Smith WR(1956) : *The Religion of the Semites*, Meridian Books, New York.

Shim-Sŏng Yŏn-Gu 2019, 34 : 1

〈ABSTRACT〉

**A Perspective of Analytical Psychology on the Symbolism  
of ‘The Mysteries of Light’ in the Rosary**

Bo Ai Kim, Ph.D.\*

In 1964, Roman Catholic Church declared that ‘Christ is the light of mankind’ at the Second Vatican Council. Pope John Paul II also proclaimed the ‘The Mysteries of the Light of Christ’ in 2002. For past two centuries, the fact that Christ is the light was emphasized and people were urged to realize the mysteries by focusing on ‘Christ of light’ and ‘Christ who shines like the sun’.

This study examined the meaning of living up to ‘the Mysteries of the Light of Christ’ through analytic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the symbolism of ‘the mysteries of light.’ in the Rosary. In order to study symbolism of ‘the Mysteries of Light’ from analytic psychological perspective, this study dealt with the symbolic meaning of images appeared in ‘the mysteries of light’ of the Rosary. That is, the symbolism of images was revealed ‘the mysteries of light’ has been testifying for Christ the light in the Bible. Those images represented the Baptism, Wedding at Gana, the Kingdom of God, Transfiguration of Christ, and the Last Supper.

To live up to the ‘The mystery of Christ the light’ means to assimilate the unique Self with the image of ‘Christ the light’. in other words, the study has meaningful findings that the personality which became conscious and individuation through experiencing the opposites existed as ‘the light of the world’ or ‘the light of the ages’.

**KEY WORDS** : The rosary · The mysteries of the light · Christ · Self · Analytical psychology.

---

\*Seoul Metropolitan Seobu Child Counseling Therapy Center, Seoul, Korea